

“세계인이 몰려든다”... ‘국제도시 여수’ 힘찬 도약

문체부 예비국제회의지구 공모 선정...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 구축 3년간 국비 3억원 지원받아... 편리한 교통망·주요도시 접근성 강점

연간 13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여수시가 '예비국제회의지구(이하 예비지구)'로 선정(4월3일자 광주일보 2면)되면서 마이스(MICE)산업 역량을 갖춘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도시로 부상하고 있다.

여수시는 지난 2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 국제회의 산업 육성을 위한 전국 지자체 대상 예비지구 공모에서 군산, 울산, 원주와 함께 최종 선정됐다.

'예비지구'는 기존 광역도시 중심의 '국제회의 복합지구' 대상을 확대해 국제회의 개최 역량이 있는 중소도시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국제회의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신설된 제도이다.

이번 선정에 따라 시는 향후 2년간 지원과 평가 후 1년 추가 지원으로 최대 3년간 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아 국제회의 개최 역량을 여수세계박람회장 일대에 구축하게 됐다.

여수가 이번 공모에 선정된 주요 요인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풍부한 볼거리·먹거리뿐만 아니라 세계박람회 등을 통한 대규모의 국제행사를 개최할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교통·숙박·관광 인프라 구축과 연간 1300여건의 국내외 행사 개최 경험을 국제회의 지구 선정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여수경도해양관광단지 호남 최초의 글로벌 최고급 5성급 브랜드 호텔이 추진되고, 화양복합관광단지 세계에서 가장 긴 206m 규모의 인피니티 사계절 수영장을 갖춘 콘도 설립 계획도 플러스 요인으로 꼽힌다.

현재 여수시는 관광호텔 17개(1675실), 휴양콘도미니엄 2개(228실), 호스텔 233개(2738실), 일박숙박 261개(7726실), 펜션민박 683개(1968실) 등 풍부한 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예비지구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교통 인프라도 여수의 강점이다. 항공·철도·선박·고속버스 등 육·해·공을 통한 편리한 교통망을 보유하고 있고, 고속철도 KTX를 통한 전국 주요 도시와의 원활한 접근성도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도 해양관광도시의 브랜드 인지도가 높고, 국제 크루즈항을 보유하고 있어 국제해양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도 높이 평가됐다.

이 같은 여건에 힘입어 예비지구로 구축되면 여수시는 글로벌 해양관광 마이스 복합도시로 도약함과 동시에 마이스 산업의 기반 구축, 각종 국제적 행사 유치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된다.

또한 국제적 행사의 유치와 개최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내년 열릴 예정인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에 활력을 불어넣고, 오는 2028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를 여수를 중심으로 한 남해안남동권에 유치하려는 목표에도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비지구 선정을 통해 대규모 전문회의시설과 마이스 사업체의 부족함을 만회하고, 마이스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여수가 이번 예비지구 선정으로 명실상부한 국제적 해양도시의 위상을 굳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면서 "앞으로도 국제적인 포럼과 학술대회 등을 적극 유치해 동남아 마이스 산업의 핵심도시로 도약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예비지구 심사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두 달간 집적시설을 전수 조사해 연계 콘텐츠 개발했으며, 국제회의 유치전략을 수립하는 등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승원 기자 swseo@kwangju.co.kr
/여수=김창희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예비 국제회의지구 안내도



GGM노조, 조정·중재안 수용 보류...집중교섭 제안

“파업권 포기할 수 없어” 사실상 거부...사측, 교섭제안은 환영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조합이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 수용을 보류하고 집중교섭 등을 다시 제안했다.

GGM노동조합(노조)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 달간 평화기간을 갖고 집중교섭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자"면서 사실상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을 거부했다.

노조가 조정·중재안을 거부함에 따라 GGM과 노조의 갈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가 조정·중재안을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35만대 달성시까지 파업 유보"다.

노조는 "조정·중재안은 사실상 2027년까지 노동 3권을 제약하며 파업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사용자인 GGM에게는 노조사무실 제공·조합비 일괄 공제 등 일반적이고 최소한의 의무만 지우고 노조에게는 마지막 권리인 파업권을 달라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조는 "노동조합의 파업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사평화 기간을 한 달간 가지면서 집중교섭을 해 노동 3권이 인정되는 GGM이 만들어 진다면 파업까지 갈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GGM측은 노조의 교섭 제안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의 수용 여부를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GGM 관계자는 "단체 교섭에서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에 나선 것은 노조 측이라는 점에서 노조가 교섭을 원하면 언제든지 응할 것"이라면서 "노조에서는 먼저 조정·중재안 수용 여부를 이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 열린 '2025년 제2차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민정협의회 조정·중재안을 광주시, GGM, 노조 측에 제안했고, 광주시와 GGM은 수용의 입장을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시, 평생교육사업 2년 연속 선정

광주시가 정부의 평생교육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됐다.

광주시는 교육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선정돼 국비 5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시도 평생교육진흥원(광역지자체), 평생학습도시(기초지자체), 평생교육 유관기관(지역 대학·기업 등) 간 컨소시엄 모델을 운영해 지역 간 평생교육 분야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특성화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평생교육 제공을 위해 지역 공공기관과 교육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교육부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을 신청해 지난 1일 최종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내일(My job, Tomorrow)이 빛(光)고을·시(시니어)·나(나눔)' 사업은 광주시와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 자치구, 대학(광주보건대·조선이공대) 협력사업이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사회참여, 경제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세대 간 교류

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설계한 특화 프로그램이다.

광주시는 '내일이 빛·시·나' 사업을 오는 5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자치구별로 기업연계 워크숍 일자리, 지역대학 연계 평생현역, 거점기반 건강활력, 라이프 스토리 크리에이터, 생활밀착 디지털 등 5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노인학 콘텐츠 개발·운영, 고령자 대상 거점 캠퍼스를 지정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시는 5개 자치구가 '평생학습도시'이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전국 유일의 광역지자체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전남도, 여수 율촌 신규 산업 조성 사업 순항

전남도가 추진 중인 여수 율촌 신규 산업단지 조성 사업(조감도)이 순항하고 있다.

3일 전남도에 따르면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시행 중인 '광양항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공사 1단계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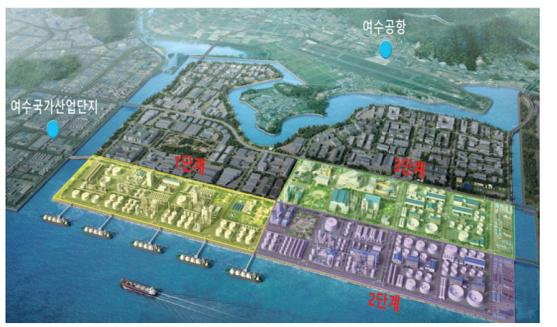
사업은 여수시 율촌면 준설도 투기장 일원에 총 6530여 원을 투입, 332만㎡ 규모의 산단 부지를 공급한다. 단지는 미래 신산업 중심의 물류·제조 거점 단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2029년 2단계 공사를 끝마친 뒤 2030년(3단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GS칼텍스는 일제까지 1단계 부지 내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며, 수소 생산 및 발전사업, 이산화탄소 포집, 수출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도는 신규 물류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과 여수광양항 물동량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전남 동부권의 고질적인 산단 용지 부족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최근 '여수 석유화학 위기대응 전략 토론회'를 개최해 36개 사업 5조 6000억 원 규모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석유화학산



업의 재편과 위기에 대응하고 있는데, 신규 물류단지 내에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투자유치도 적극 추진한다.

특히 광양만권 내 기업들이 유망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화학, 철강 등 기존 주력산업 외에도 신산업 분야에 신규 투자하는 기업들을 발굴, 유치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기업들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여수 국가산단 내 공용 파이프랙 설치와 물론 길이 205m, 왕복 6차로의 연결교량을 오는 2028년 완공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율촌 융복합 물류 단지 조성은 미래 신소재산업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산업기지 성장 사업"이라며 "여수광양만권에 진출하는 기업 등에는 산업용지 적기 공급으로 경쟁력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www.s-class.co.kr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